

**정기이사회**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조직, 운영규정 확정**

지난 8월 10일 치협 회관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구강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명칭을 '구강보건의료연구원(KIOHS : Korean Institute of Oral Health Services)'으로 확정하고 사업, 위원구성 및 제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의 연구개발 지원 △ 치과의료기관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구강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치과의료보험제도 및 정책연구 △ 구강보건 관련 법규 및 행정조직 정비 연구 등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토의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제24차 아태치과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협회창립 78주년 기념 제43회 종합학술대회 개최일자 및 장소변경 추인의 건,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승인의 건, 임시대의원총회 소요경비 예비비 지출의 건, 전남지부 과년도회비 결손 처리의 건, 여성위원회 중장기 무료틀니사업 추진의 건, 전국치과대학생 학술경연대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표창장 수여규정 개정의 건, 수재의연금 기탁 추인의 건을 논의했다.

보고사항으로 치과전문의제도에 관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치과 의사 수련기관 실태조사팀 구성, 여성위원회 주최 종합학술대회 특강개최(제목 : 재테크와 세무상식)에 대해 보고했다.

**임시대의원 총회**

**제1안 (치과전문의 개원가 완전 개방)으로 결정**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지난 8월 21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전문의제 1안과 2안에 대해 표결, '기존 치과 의사 중에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는 희망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제1안으로 결정했다.

대의원 177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1안에 92명, 2안에는 46명의 대의원이 각각 찬성했으며 기권 및 무효표는 39표가 나왔다.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대전제로 △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 △ 전문과목은 10개 과목을 실시하되 협회주관으로 실시 △ 경과조치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개정법령에 따라 치과 전공의 수련을 받은 자중 소수에게 치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임시총회에서는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작업을 치협 집행부에게 일임키로 함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앞으로 시행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및 경과조치 등을 법조항에 삽입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